



풍요로운 도심 속 공원, 온 가족 힐링 공간으로... 도심 속 걷고 쉬며, 건강을 지키는 생활 인프라 대폭 확대

강화군은 군민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곳곳에 공원, 생활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등 부족한 군민 생활 SOC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 지난 3월 군은 남산·관청근린 공원을 개방했다.

■ ‘온가족 힐링 숲’을 테마로.. 관청근린공원

‘관청근린공원’에는 주민들이 가볍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파고라, 데크 등을 설치하고, 이팝나무 군락지, 초화원 등의 녹색 공간을 조성했다.

놀이터는 케이블웨이, 원통슬라이드, 네트놀이대 등의 어린이 전용 공간을 조성해 온 가족이 휴식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관청근린공원’은 강화읍 관청리 51번지 일대 82,661㎡에 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해 풋살장, 산성놀이터 등을 갖췄다.

■ 생동감 넘치는 문화휴식 공간... 남산근린공원

‘남산근린공원’에는 군 최초의 음악분수대를 조성해 낮에는 음악에 맞춰 뿜어져 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물줄기와 밤에는 조명과 어우러진 분수 향연으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현재 분수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빔과 워터스크린을 설치 중에 있다. 오는 5월 경에는 영상과 함께 음악분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산책로는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완만하게 조성했으며, 산책 중 쉬어갈 수 있는 풍경데크, 정자, 파고라를 충분히 설치했다. 1.2km에 이르는 산책로와 어우러진 녹지공간에는 계절의 변화를 고려한 수목을 식재했다.

‘남산근린공원’은 부지면적 103,240㎡에 사업비 279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 자연을 닮은 쉼터, 운동시설, 자연형 놀이터, 광장, 음악분수 등의 시설을 갖췄다.

■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 갑룡공원, 길상공원

기존 ‘갑룡 공원’을 확장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갑룡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지난 2020년에 조성된 갑룡 공원은 현재 사업비 58억 원을 추가 투입해 갑룡공원 인접지 7,051㎡에 어린이 전용놀이 공간을 갖춘 2단계 사업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길상 어린이 공원’은 길상면 온수리 82-9번지 일원 14,354㎡ 부지에 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 속 SOC 사업에 박차를 가해 살고 싶고, 매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모습 찾기에 나선 용흥궁 공원은 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주차장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잔디와 다양한 수목을 식재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쉴 수 있도록 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강화군의 원도심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



(위) 강화군행복센터, (아래) 행복센터 남산마을 조합원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군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 경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도시재생센터를 통하여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플랫폼화하고 주민 간 협업 과정에서 자립 역량과 공동체 결속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7일에 개관한 강화군행복센터로 통합·이전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강화읍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남산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냈다.

지역 주민과 상호 협력으로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해 진행되고 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가꾸기’는 강화읍성 4대문 안 지역을 강화도령(조선 25대 왕, 철종)이 왕위에 등극하기 전 거닐었던 ‘왕의 길’을 테마로 원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용흥공공원 제모습찾기, 마을의 정취가 담긴 골목길 정비, 살기 좋은 안심마을 가꾸기, 천년 우물 쉼터 조성, 강화도심 진입부 환경 개선사업 등의 사업이 완료됐다.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강화군행복센터, 달빛공원, 고려 테마거리, 노후 주거지 정비, 남산마을 신활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온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역사 스토리가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공유주방, 공유숙박시설)조성, 마을쉼터 등 휴게공간 등이 조성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신문·새시장(22년 12월 입주)과 온수지구(23년 12월 입주)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 ‘강화여중~갑룡초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도시미관향상과 정주여건 개선효과를 극대화했다.

지난해 12월 강화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돼 올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군민이 주도하는 재생사업은 군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 [1]

행복과 활력을 주는 강화군행복센터

편안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

근린생활 복합공간인 ‘강화군행복센터’가 군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수도권과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애 주기별 모든 계층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강화군행복센터’를 지난 달 17일 개관해 운영 1개월을 맞이했다.

행복센터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카페 및 푸드스토어, 영·유아 및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센터, 어르신 맞춤형 여가 및 체력단력시설, 다양한 문화토론과 교육이 가득한 문화프로그램실, 다목적홀과 장병들을 위한 휴식공간 등이 조성됐다.

한식·제과제빵·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비롯해 어학, 미술, 공예, 악기, 요가 등 38개 문화프로그램에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으며, 5백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과 창의력을 키우며, 부모를 위한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프로그램의 연계로 다함께 돌봄 보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 여가시설에서는 노인 맞춤형 건강 및 여가 활동이 전문 강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와 함께 여가·문화프로그램이 창업과 창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센터는 일반 문화강좌뿐만 아니라 한국글로벌세프고등학교와 연계한 요리 명장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메뉴개발, 조리과정 개선, 마케팅 기법 등을 교육해 관내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와 함께 문화를 향유하며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행복센터 내부활동(문화강좌)

선도적 농·축·어업 시책발굴로 경쟁력 강화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협의회 개최

강화군이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협의회(회장 고석현)와 함께 ‘경쟁력 있는 농·어업, 잘 사는 농·어촌 실현’을 위한 현안 사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천호 군수, 고석현 회장, 이수근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을 비롯해 농·축·어업 분야 조합장 등이 참석해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해양관광 및 생활밀착형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 구제역 및 광견병 백신 일제 접종,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못자리 관리 현장지도 등 농·축·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영농시기를 앞당겨 영농을 서두르는 농가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저온 피해 예방과 고품질의 강화섬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기 못자리 기간(4/25~5/5)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가뭄, 태풍, 냉해 등의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함께 협력해 보험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2035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30%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된다.

한편, 군의 2022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1,093억 원으로 2017년도 424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을 위한 사업비 57억6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을 전국 최고로 대우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2035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착수

미래 비전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 마련한다



농축수산업 정책협의회

강화군이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미래비전과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2035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유천호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수행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추진계획 보고 및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 글로벌 역사·문화 관광도시, 탄소중립 도시 실현, 강화형 특화사업, 강화군의 정체성 확립 등 5개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수립에 중점을 두고 작성한 용역 계획안을 보고했다.

군은 2035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인천 해양친수 도시조성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상이 현실이 되는 메타버스,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중장기 정책과제들을 담아낼 방안이다.

특히, 계양~강화 고속도로, 서해평화도로(인천공항~강화~개성·해주), 국도48호선과 지방도84호선 등 전략교통망을 활용한 남북경제교류 거점도시로서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특화된 지역 경쟁력을 갖춘 실행 계획을 도출하려 한다.

군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T/F 운영, 현지답사, 주민인터뷰, 주민참여단 워크숍,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내년 1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풍요로운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벼 종자소독 및 못자리 현장 지도

4월 25일부터 5월 5일 못자리 설치 적기



못자리 설치

강화군은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영농시기를 앞당겨 농작업을 서두르는 농가가 있으나, 저온 피해 예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적기 영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적기 못자리 설치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못자리를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나섰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못자리를 조기 설치할 경우 생리장해 등이 생길 수 있다. 적기에 못자리를 설치해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벼 보급종은 미소독 종자이므로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벼알마름병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벼 종자를 적용약제 희석배수를 준수한 30℃의 물에 24시간에서 48시간 소독하거나, 벼씨온탕소독기를 이용해 60℃의 물에 10분간 소독 후 냉수 처리한 다음 싹을 틔워 파종하면 방제효과가 높다.

육묘는 ha당 300상자, 파종량은 상자당 120~150g으로 적정 모수를 확보해야 하며 육묘기간 중 고온으로 인한 뜸묘, 입고병 예방을 위해 적정온도로 관리해야 한다.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접종 실시

고령층 중증화 예방위해 접종해야

정부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60세 이상 3차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다. 또한 확진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대상군에 해당된다면 희망하는 경우 3차 접종과 4차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고령자의 접종 편의를 위해 보건지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과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은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97% 이상이 60대 이상의 연령층”이라며 “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약은 누리집(<https://ncvr.kdca.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1339) 또는 군 보건소 콜센터(032-930-4009, 4034)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은 읍·면사무소로 연락해, 예약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최백하 기자

60세 이상 연령층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을 시행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은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나신 분
*1962년 이전 출생자(생년 연도 모름)
 *질단 감염 우려가 있는 요양병원·시설·제3연장 종전 시설 포함 대상자와 접종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면역저하자(3차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백신종류

mRNA 백신 혹은 노바백스 백신*
*mRNA 백신 급기 연기 대상자(예나, 노바백스 백신을 희망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 가능)

예약일정 및 방법
사전 예약 4월 18일(월) ~
 ①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
 ② 전화 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 대리예약 가능

접종일정
당일접종 4월 14일(목) ~
예약접종 4월 25일(월) ~
 당일접종 방법
 ① 카카오톡 네이바에서 전역백신 예약
 ② 의료기관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 명단

4차접종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목표로 시행합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Photo NEWS

현장행정



강화군, 학교 자투리 부지에 '명상 숲' 조성



갑룡공원 어르신들

코로나에도 배움의 열정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행복한 노후, 인생 제2막 도전과 열정을 지원합니다



제 51기 노인대학 입학식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부설 ‘강화군 노인대학’은 지난 21일 노인회 강당에서 제5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장기천 노인회장,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노인회 임원진이 참석해 노인대학 입학생을 축하했다. 노인대학은 입학생 104명과 재학생 99명을 대상으로 강화군노인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교양강좌, 건강·취미교실,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된다.

강화군 노인대학은 지난 49기까지 3,7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시던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지내며, 가슴 속의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입학식을 개최해 감회가 새롭다”며 “모든 입학생들이 배움의 열정으로 노인대학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얻고,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에 열정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인생 제2막의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지급

인천시 군·구 중 최초! 장수축하금 및 물품 50만 원 드립니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강화군 장수축하금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지급대상은 1922년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 28명이다.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축하물품은 읍·면을 통해 직접 전달된다.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 대상자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당사자 또는 직계비속 등 위임을 받은 자는 생일 1개월 전에 신분증과 통장,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생애 1회 장수축하금 3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강화군청

군 관계자는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청 태권도 품새 광여원선수 겸경사

‘항저우AG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국가대표 발탁’
‘2022 고양 세계품새태권도선수권대회’자유품새 혼성 ‘금메달’

강화군 소속 태권도 품새 광여원 선수가 지난 11일 경북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여자부 1위를 차지하면서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로 최종 발탁됐다.

이어 지난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광 선수는 “오랜만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서도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차지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 소속 선수가 최고의 자리인 국가대표에 당당히 선발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청 소속 광여원 선수

인천시, 32개 유인도 섬 발전 기본계획 마련

42개 사업,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섬 주민 정주환경 개선하고, 섬마다의 특성 반영한 전략 제시



선재도 목섬 전경

인천시가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인천광역시청은 그동안 추진해 온 개발정책과 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시각에서 재점검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1. 9월 현재 인천에는 168개 섬이 있으며, 그 중 유인도 40개 중 개발대상 섬은 32개다. 인구수는 20,934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섬은 백령도(5,281명), 교동도(2,901명), 석모도(2,136명) 순이다. 또 섬

의 전체 면적은 256.2km²로 인천시 전체면적의 24.5%를 차지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인천 섬'을 비전으로 ▲살고 싶은 섬(정주환경) ▲삶의 터전인 섬(지역경제) ▲지속가능한 섬(교통 및 접근성, 문화관광) 전략이 제시돼 있다.

기반시설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섬의 개발정도, 자원, 인구특성, 산업기반, 정주환경 등을 영역별로 평가해 섬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섬 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이 계획수립에 참여해, 분야별로 정주환경 11건, 지역경제 10건, 교통 및 접근성 11건, 문화관광 10건 등 총 42건 사업을 계획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2,395억 원의 예산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계획수립을 통해 섬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제복지 발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강화·옹진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소멸지역 대응정책의 역할을 통해 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 섬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섬 개발·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로 납부하면 최대 1,600원 절약된다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 납세자 편의 도모 및 예산절감 효과,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



인천 시청

인천시가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인천광역시청은 202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의 경우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

부 하는 경우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액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공제 대상은 시세 중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6월·12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며,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 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인천시 이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12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간편결제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세액공제액 확대로 시민들께서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지서 제작비용이 줄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특별시 인천의 환경정책 기조에도 부합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송기훈 기자

포스트 코로나 준비위해 사회복지시설 110개소 시설개선 지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시에 성금 7억여 원 전달
포스트 코로나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 110곳 공모 선정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가운데)이 15일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15일 시청 중앙홀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천모금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의장, 조상범 인천모금회장과 성금 지원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모금회에서는 올해도 시민의 소중한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6억9천만 원이 편성돼, 시설개보수 및 장비보강이 필요한 곳에 지원된다.

인천모금회는 지난 2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심사를 통해 굿프랜드, 꿈쟁이 지역아동센터, 모아 직업재활시설, 스위트홈 등 1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조상범 인천모금회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복지현장 인프라 강화사업은 열악한 시설환경을 복지 친화적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이용자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코로나19 같은 또 다른 팬데믹이 와도 단단하게 다져진 복지 근력으로 지역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 송기훈 기자



농업일손지원 (못자리, 모내기)

지원기간 ~5.27.(금)까지

지원대상

관내 못자리, 모내기 현장 (밭 제외)

※ 우선지원 : 노약자·부녀자·기초생활수급농가 등

신청방법 지원 희망일 2주 전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내용 해병대 제사단 장병
농업 일손지원

Photo NEWS

현장행정



4월 5일(화)부터 월미바다열차 탑승정원을 46명으로 늘려 운행



인천노을야경투어 4월 29일부터 운행



22일 인천애들 광장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전등식'이 열리고 있다.

50만 대도시『김포』진입 준비

'김포시 50만 대도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 첫 회의 개최



50만 대도시『김포』특례검토 사전준비단 회의

김포시는 1998년 4월 1일 市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로 24년차인 2023년도에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50만 대도시 지정에 따른 변화 중 하나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하던 사무를 시가 위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김

포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25개분야 경기도사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게 된다.

김포시는 이러한 변화된 행정환경과 직면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코자 지난달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조직『김포시 특례검토 사전준비단(TF)』을 출범시킨 바 있는데, 4월 8일에 첫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했다.

이 날 회의는 16개부서 30여명의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특례사항 분석」과 「타시군 벤치마킹 결과 보고」, 「팀별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수렴」 등 총 6개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매달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분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는 적극행정의 모범사례인『김포시 특례검토 사전 준비단(TF)』활동을 통해 위임사무의 명확한 분석과 선제적이고 적절한 조직배치 및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50만 시민들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도출을 기대해 본다. 1

김포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수립 추진

임시선별검사소 1개소 운영 종료, 보건소 일시중단 평상업무 단계적 재개 등



김포시보건소

김포시는 市 자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김포시 신규 확진자는 3월 둘째주 정점 대비 69.9% 감소하여 4주 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내 4월 둘째주는 일일평균 1,3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확연한 감소세에 따라 중앙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 전환과 발맞춰 김포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시 자체 상황에 부응하는 대응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계획에 따라 진단-검사-치료 전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연계해 나가고 2020년 12월부터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운영 중이던 임시선별검사소 중 먼저 사우동 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를 4월 17일부터 운영 종료하고 추후 마산동 생활체

육관 임시선별검사소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로 체육시설에 인접해 있던 임시선별검사소가 철거됨에 따라 시민들이 근접 체육시설 등을 다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 대응업무에 지원했던 시 행정인력도 원래 부서로 복귀했고 보건소 자체 인력은 업무 수요를 감안,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코로나19 관리업무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전체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일시 중단해 왔던 보건증 발급, 진료 등 보건소 일부 평상업무는 중앙 방침과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차 정상화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4차접종을 적극 시행하고 코로나19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24시간 상담(1577-0199)을 제공 중에 있으며 공무원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위한 소진관리프로그램도 5월부터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시보건소장(최문갑)은 “그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나고 일상 회복에 다가서는 과정에 와 있다”며 “다수 전문가들의 가을, 겨울철 재유행 경고 등 완전히 경각심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앙의 방역대응체계에 발맞춰 시민의 안전과 건강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

- 송기훈 기자

기고

아버지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낱아서 뻥이고 입히고
강화도 고인돌 선사마을 축제
아이 눈엔 아득히 낯선 곳
낯가림 투정을 달래서 곤장을 맞는다

철석 하나요
철부던 돌이요
으악 셋이요, 깔깔깔
금새 어리광에 엄살도 부린다

부지런히 벌어서 학교 보내야할 일이며
검붉은 심장 탕탕한 허벅지살을 도려
周牢주리 틀 일 얼마런가
밀지는 장사 없다던데
몽클한 핏덩이

아빠아……

진달래꽃 방앗 품 안의 웬수
바보 같은 저 사내
아버지라는 이름의 罪죄가
聖성스럽다

필자는 2017년엔 ‘인천시 문화재 보존 사업단’에서 고인돌 해설사로 근무했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축제’에 더불어서 ‘고인돌 선사마을 축제’와 함께 체험이 병행되었습니다. 고려산 진달래를 보고 내려와서는 대부분의 가족나들이객들은 선사마을 체험을 어린아이들과 즐기고 귀가했습니다. 필자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아빠와 엄마 손을 잡고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진달래꽃은 유독 고려산 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 걸쳐 새빨강게 물들이고 있어서, 진달래를 國花국화다. 즉 ‘나라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보았습니다. 진달래를 한자표기 하자면 ‘眞達來진달래 참으로 봄이 되어 도달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는 ‘眞月背진월배’ ‘참꽃’ 상대적으로 조금 뒤늦게 피는 철쭉을 ‘개꽃’이라 칭하기도 한다. 두견새가 피를 토한 자리에 핀다 해서 ‘杜鵑花두견화’라고도 합니다. 진달래는 우리 한국이 원산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인지 우리네 뒷동산에만 올라가도 정겹게 볼 수 있는 꽃이고, 정서적으로도 서민의 꽃이기에 많은 문인들이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고려산 진달래 축제’가 3년째 취소되고 고려산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덩달아 가족나들이마저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겐 성장과정에서 발랄하게 뛰어다니며 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들녘 필수입니다. 집안에 갇혀만 있다면 체력훈련이 부실할 수밖에 없을 테고, 정신적으로도 껌박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뛰놀 공간으로 고인돌 광장만큼이나 더 좋은 곳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널따란 잔디 언덕에 구루마 놀이기구를 타고 연을 날리고 하는 모습에서 역시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건강하겠구나! “어린아이들 답다”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화도에서도 코로나19 일일 감염환자 수가 2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들쭉날쭉 한 가운데 불안감으로 인해 함부로 나 댕기지 못했습니

다. 어느 날 향교 서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북산에 벚꽃이 화들짝 놀라 피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벚꽃 북산길 마저 폐쇄되어 있어서 벚꽃이 만발했음에도 스산했습니다. 빨간 곤봉을 쥔 청년이 통제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북산 벚꽃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뒷동산으로 산독을 넘고 오읍약수터로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진 않았지만 작년보다 한결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鎭松樓진송루 앞에 아이들을 세우고 사진을 찍는 모습



을 보니 ‘살 맛 나겠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젊은 처자들은 벌써부터 양산을 받쳐들었습니다. 자신의 멋과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개성 있는 행동이 이색적인 풍광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읍약수터로 내려가 솔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들길 1코스인데, 나들길 다닐 적에는 오읍약수에 갈증을 풀어내고 연미정으로 향하는 길이었으니, 오읍약수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생명수인 것입니다. 솔밭에 털썩 주저 앉았다가 성독으로 올라갑니다. 목재로 계단을 만들어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히 오를 수 있었는데, 그간에 운동부족 탓에 숨이 헐떡 헐떡 턱에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성독에 오르고 넓은 공간 북장대 터에 섭니다. 북장대 터는 아직 확연히 밝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북장대에서 훈련을 받고, 군졸들이 막걸리 대폿잔에 전우애와 군기를 세웠다는 고재형 선생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멀리 남장대를 봅니다. 남장대만 복원된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조강에선 바람이 불어옵니다. 조강 넘어 북녘의 산하가 처연합니다. 진송루쪽으로 내려가는 성독길은 곤두박질입니다. 한데, 대여섯 살 먹은 어린 여자애가 두 팔을 휘휘 내저으며 가파른 언덕을 타박타박 쉽게도 오르는 것입니다. 어허!! 얼마간 앞으로 쪽 올랐다가 뒤 돌아 봅니다. 엄마 아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보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의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의 영역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궤적을 면면히 살펴보면 발전적 성향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뛰어난 능력은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멸종하고 만다는 타 생명체보다는 우월한 존재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역시 극복하고 말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불편했을 뿐입니다. 이제 불편한 마스크 벗어 던지고 화목한 가족을 이끌고 봄나들이 자연스럽게 곧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가정의 화목과 평화. 양증맞은 아이의 투정을 달래기 위해 형틀에 묶여 매를 맞는 아버지, 휘휘 앞서가던 어린 소녀가 엄마 아빠를 저보다 어린 동생을 기다려 주는 마음이 성스럽습니다. 7

기고

강화 교육의 위기와 기회



이 대 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인천에 대한 위상은 분명 예전과 달라졌다. 인구와 면적뿐 아니라 경제적 인프라도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인천교육은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간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상위권 학생들의 유출과 우수 학교 유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천교육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인천교육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우수 대학은 물론 외국대학의 캠퍼스도 유치하고 있으며, 인천의 우수한 학교를 찾아 지방의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한 가치에만 경도된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인천교육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강화는 그동안 인천교육에서 변방처럼 소외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여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등 획기적인 시도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하여 해당 학교만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송도, 청라, 영종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의 재개발로 인천의 각지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개발 계획이 요원한 상황이다. 지역 개발과 교육의 관계가 밀접한 현실적 요인을 생각하면 강화교육의 현실은 당장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학령기의 아이들이 감소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의 인천교육 체제와 정책만으로는 해결 가능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실행시켜야 할 때이다. 강화는 천혜 자연을 갖고 있다. 그와 함께 찬란한 역사를 자랑한다. 이러한 특성에 맞는 학교로 기존의 학교를 특화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초중고를 함께 통합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일관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지리적 한계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립학교가 나름의 색을 갖추고, 강점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이 발전하는 사례를 여러 학교에서 찾을 수 있다. 강화는 서울과 인접성이 좋은 만큼 타 지역의 사례들보다 큰 강점을 갖고 있다. 강화를 인천교육 르네상스의 출발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학교를 표방하여 좀 더 넓은 시각을 갖출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숲 체험 활동 등을 초등교육과 연계하여 적용하고, 기후위기 교육과 함께 융합교육을 적용한다면 새로운 시대적 가치에도 부합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의 이슈는 환경과 수월성에 있다. 하향평준화의 방향으로 흘러가던 교육에서 학생 개인의 다양성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정 이념으로 편향된 교육감이 아닌 교육 중심의 교육감이 선출된다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교육의 방향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 강화의 가능성을 쫓아낼 수 있는 노력과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건 · 강 · 참 · 살 · 이

봄철 건강관리 및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달걀 달걀은 각종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비타민과 단백질 그리고 필수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으로 완전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달걀은 뼈를 튼튼하게 해 골다공증에 좋으며, 두뇌건강 및 탈모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달걀에 포함된 레시틴 성분은 혈관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중성지방을 배출시켜 주어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예방,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매일 아침식사 대용으로 달걀 2개를 섭취하면 단백질 보충효과와 함께 하루 동안 식욕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잘못된 상식 달걀 1개에는 210mg정도의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는데 WHO(세계보건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성인 하루 콜레스테롤 제한량 300mg을 제시하고 있어 달걀 2개만 먹어도 초과가 된다. 하지만 달걀에 포함된 레시틴이 체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저해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귀리 귀리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선정되면서 국내 소비량이 늘어가고 있다. 귀리는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귀리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칼슘이 현미의 4배, 단백질은



쌀에 비해 2배 가량 많아 이유식으로도 관심받고 있으며, 성장기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 식품이다.

귀리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하루 포만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신진대사를 올리고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줘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쌀과 귀리를 7:3 정도로 넣은 만든 잡곡밥을 만들어 섭취하거나, 귀리를 볶아 가공한 오트밀, 귀리 빵, 시리얼 등을 간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중남미를 원산지로 하는 과일로 쉽게 물러지고, 지방함량이 높아 숲에서 나는 버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함량이 높은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에 유리하다.

특히 아보카도에 포함된 단일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합성을 막아줘 배고픔을 줄여주고 포만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며 염증완화 및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알려져있다. ▣ - 권주형 기자



발달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우리마을

콩나물사업장 재건 1주년 기념식

벚꽃이 만개한 봄 날. 우리마을 콩나물사업장 재건 1주년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2019년 10월 전소되었던 콩나물사업장이 기적처럼 재건된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내빈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재건을 위해 도움을 주신 풀무원, 아이쿱 등의 협력업체와 3,642명의 후원자분들, 기도와 봉헌으로 뜻을 모아주신 대한성공회 모든 교회와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1]



우리마을 콩나물사업장 재건 1주년 기념식

해병2사단 팔각모 사나이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농촌 일손 부족 대민지원에 걱정 덜어



해병대_대민지원

해병대 2사단은 코로나19로 일손돕기 등 손길이 끊기면서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부대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민지원에 나섰다.

해병대 2사단은 평소 국가안보 수호뿐만 아니라 매년 연인원 5천여

명에 달하는 장병들을 영농활동, 환경정화 활동, 방역 및 태풍피해 복구 등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농철에는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에 나서면서 농민들의 근심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일손 지원을 받은 한 농민은 “농업이 기계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못자리나 모판 나르기처럼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며 “나라를 지키는 젊은 장병들이 자기 일처럼 농사일을 도와줘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민지원은 다음달 27일까지 진행되며, 공휴일과 휴일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일손돕기 우선지원 농가는 약자·고령자·부녀자로만 구성된 농가, 기초생활수급 농가 등으로,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일 기준 2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이맘때면 해병2사단의 도움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사고 없이 모내기를 마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

GanghwaToday

서혜경 피아노 리사이틀

Hai-Kyung Suh

PIANO RECITAL

2022. 5. 21(토) 17:00 김포아트홀

티켓: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16만원 17만원 18만원 19만원 20만원 21만원 22만원 23만원 24만원 25만원 26만원 27만원 28만원 29만원 30만원 31만원 32만원 33만원 34만원 35만원 36만원 37만원 38만원 39만원 40만원 41만원 42만원 43만원 44만원 45만원 46만원 47만원 48만원 49만원 50만원 51만원 52만원 53만원 54만원 55만원 56만원 57만원 58만원 59만원 60만원 61만원 62만원 63만원 64만원 65만원 66만원 67만원 68만원 69만원 70만원 71만원 72만원 73만원 74만원 75만원 76만원 77만원 78만원 79만원 80만원 81만원 82만원 83만원 84만원 85만원 86만원 87만원 88만원 89만원 90만원 91만원 92만원 93만원 94만원 95만원 96만원 97만원 98만원 99만원 100만원

2022년 강화군청소년문화의집 생활설계 프로젝트

Dalkom Dalkom Home Baking

운영기간 : 2022. 4. 21.(목) - 10. 27.(목)
신청기간(2회기) : 2022. 5. 3.(화) - 5. 4.(수)
오전 9시부터 ~ 선착순 모집(조기마감 가능)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강. 아이싱쿠키 만들기

활동안내 가족과 함께 홈베이킹 만들기
신청대상 및 인원 강화군내 초·중·고·대 1~6학년제에 해당하는 청소년 30명
신청문의 032-930-7049, 7050 (전화접수만 가능)
※ 강화군시설관리공단(www.ghss.or.kr) 공지사항 참고
활동장소 개인별 활동 지정지역
배부일정 2022. 5. 6.(금) 13:00 이후 문자로 개별 통보
배부일시 2022. 5. 12.(목) 13:00 ~
강화청소년문화의집 본관 1층 사무실 앞(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20)
안내사항 활동일지, 사진(UPG) 3장, 만족도 조사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단, 기존에 핸드메이드 가족공예 및 달콤 홈베이킹(1회기) 참가한 가정 중에서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운영시간 안내 OPEN 9:00 - CLOSE 18:00 ganghwa_youthcenter

만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코로나백신 어린이접종

어린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아용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접종방법 안내

대상 만 5~11세 소아
접종방법 접종기관* 전화예약 후 접종
*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934-1175

★ 마지막 한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사는 계속됩니다. ★

황소 마을 7주년 감사 행사



지난 7년간 황소마을을 사랑해주신 고객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암소·암돼지 전문
살치살·토시살·안창살·
갈비살·등심

암돼지 (유황돼지고기)

생 목살	15,000원	▶ 9,900원
생 삼겹살	15,000원	▶ 11,900원
생 양념갈비	17,000원	▶ 13,900원

소고기는 하루 전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032.932.9595



정관장 강화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1층
M. 010.5313.3368

대표 김 형 식

032) 933.2304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